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청년 라운드테이블: 'K-민주주의'의 미래 (feat. 밀레니얼) 발제 요약문

1. 민주주의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 주인의 소양과 속의 민주주의의 힌트 (주홍비, 사단법인 날아 공동대표)

주홍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과거 피와 땀으로 이룩한 숭고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최근 법과 제도로써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었던 평화적 탄핵으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점을 던진다. 주 대표는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 정치인재 양성 시스템, 시민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 등 정당 역할의 부재 ▲ 시민사회가 정부의 사회적 기반 및 행위자화되면서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론장이 단순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의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 대안은? 속의 민주주의

이러한 배경에서 주홍비 대표는 미래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에서 모색한다. 속의 민주주의란 공적 영역(public sphere) 혹은 공론장의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공동선 확보의 개념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질을 높여 공공문제 해결을 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자 현실적 방법론이다.

주 대표는 이러한 속의 민주주의가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책 차원에서 대두되는 여러 한계점들과 심각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주 대표는 잘못된 선거풍토와 정당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성, 효과성이 저하되면서 대의 기구들의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많은 문제와 현안들의 경합으로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의제화되지 못하는 등 정책이슈들이 대량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이슈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책 결정의 속도가 둔화되어 결국 변화와 결정속도 간 불일치를 초래하는 복잡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정책이슈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더욱 더 심화된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도 후보자도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경우, 정책 중심

이 아닌 ‘이미지’ 혹은 ‘스타일’ 중심의 선거로 이어져 의회의 정책 능력이 저하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주 대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숙의해야 한다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며, 그 핵심 개념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나의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그르다’는 방식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여러 대안들 속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사려 깊게 대안들을 저울질하며 평가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인 ‘사려깊은 저울질(weighing)’과, 타인과의 소통과 토론 이외에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인 ‘내적 숙의(deliberation within)’를 제시한다.

주 대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의 문제, 일반인들의 숙의에 맡기기 어려운 주제 및 사안의 문제, 숙의 토론의 질과 토론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왜곡 문제 등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93%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례를 들면서 숙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주 대표는 숙의 민주주의 이외에 트레바리, 크리에이터 클럽, 문토 등 최근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살롱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을 통하여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은 정치적 집합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의, 살롱문화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인의 소양과 숙의 민주주의의 힌트

주홍비 대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핵심으로 규정하는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누구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진정으로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주 대표는 현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성찰과 책임성이 동반된 주권 보유자로서의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주권을 가지지만 그 주권을 진정으로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격은 치열한 자기성찰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들은 제도정치 내에서도 자기성찰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조직에서 민주주의 위기

(김인호 NEO BUSAN 집행위원)

김인호 위원은 대부분의 2030세대들에게 민주주의의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로 ‘생활 속 민주주의’가 낯설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

김 위원은 민주주의의 실천 척도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투표 행위가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비레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은 정량적인 투표 행위와 맞물려 과연 민주주의가 정성적인가 아니면 정량적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투표 행위를 많이 할 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하면 기술진보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한 몇 달 전 조국 사태로 촉발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표되는 양 진영 간 대립에 대하여 집회 참석자 수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 보도들을 실례로 들며 민주주의가 정량적인 것만 중요한 것인가, 과연 집회 참석자 수로 민주주의가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김 위원은 우리가 투표날에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외친 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과연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체나 대학 등에서 자행되는 비민주적인 회장 선출 절차, 아파트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 등의 막강한 권한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민주주의의 붕괴, 협동이 없고 위임장만 난무하는 시민단체 총회 등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사라진 사례들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은 이렇듯 생활 속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대한민국이 정량적 민주주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투표 수를 획득하거나 집회에 많은 참가자들을 동원하면 이긴다는 인식이 정량적 측면만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함정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위원은 민주주의의 ‘정성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소수의견과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성적 측면이 녹아 들어갈 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상원과 민의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하원이 공존하는 미국 양원제 모델을 정량적 정성적 측면 각각을 반영할 수 있는 예로 든다. 생활 속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동시에 생활 속 민주주의 지표 개발, 전문 프로그래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정성적 부분을 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3. 정당민주주의, 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윤정 전)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이윤정 전연구원은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약 8년 간의 정당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한다. 이 전연구원은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민주주의가 과연 책임 있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최근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정당 내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들은 급격한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투명성 없고 권위적인 당 내 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또한 당 내 지도부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으로 인하여 인사 이동이 빈번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특히 전임자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된 사업들은 가장 먼저 철회되는 등 전임자 흔적 지우기가 만연하여 좋은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정당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성찰과 실천 미약, 정당 내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인재 양성의 한계, 정당 내 토론 문화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전연구원은 당 내에서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집권화 현상이 고착화된 당 내에서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유권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정당 개혁을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한 당 내 공부 모임의 확장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 당원, 플레이어 등을 대상으로 정당 내 선순환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한 토양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통한 위계적인 서열질서 대신 파트너 존중 문화가 확립되어야 하며, 중장기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 전 연구원은 당원들의 임기가 짧으므로 단기성 사업만 반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2030세대들에게 돌아온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면돌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4. 민주주의 바로잡기 - 커지는 민주주의 위기 속 의회라는 기둥 - (김동민 나비1020 대표)

김동민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의회의 힘이 미약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주축이 대통령 권한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발제를 시작한다. 김 대표는 다양성이 포용되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논의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 시스템은 의회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 대표는 현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기로 실버민주주의 시대와 포퓰리즘 시대를 든다. 실버민주주의 시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점점 더 기성세대 인구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 민주주의 체계에서 세대 간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초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부담했던 의무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는 기성세대와 달리 미래세대는 기성세대가 전가한 의무까지 부담하면서 그보다 못한 권리를 누리는 세대 간 정의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는데, 세대 간 정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주의 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실버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포퓰리즘 시대는 기존 체제에 대한 박탈감과 그에 따른 불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면서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포퓰리즘 경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가짜뉴스의 확산 및 합리적 이성 대신 직관적 사고에 의한 호불호 정치와 맞물려 심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한국은 민주화 세력인 586세대가 민주주의를 이분법적 세계관에 가두고 있어 포퓰리즘을 정제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차단된 상태라고 진단한다.

김 대표는 586세대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 소통과 참여를 내세우며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앞세운 이러한 시도들이 의회를 비롯한 기존의 관습과 절차들을 무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양성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감안 시 실버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경향,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다수에 의한 다양성 훼손을 가속화하고, 숙의를 통한 논의의 여과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의회의 본질이 모여서 논의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한 채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지속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감소시켜 의회 내 논의 공간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중심축을 의회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또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의회가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한편, 적절한 숙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숙의를 위해 절차 및 숙려기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 현 실버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절차 강제화 ▲ 심의 절차 보장을 통한 충분한 숙려기간 확보 ▲ 양원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

이원화 및 심의 강제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들의 준비 (더영텐트 총괄 디렉터 김경동)

김경동 대표는 “젊으면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며, 위기 대응 능력과 유연함, 그리고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 그러한 멋진 지도자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생태계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여러 정당에서 기획하고 실행하였던 정치 교육 프로그램 및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정당 안팎에서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만으로는 소위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들만으로는 우수한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에 대한 장기적 훈련,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정책적인 연구, 공인으로서의 수양, 정치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치적 역량을 쌓으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생태계 안에서의 오랜 정치 경험 후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마크롱이나 산나 마린과 같은 젊은 지도자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로 독일의 독립적인 청년 단체이자 현재 120,000명의 회원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Junge Union)’의 사례를 든다. ‘영 유니온’은 그 생태계 안에서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선거를 통해 부여하며 국방부 장관, 연방 의장, 내무부 장관, 연방 의원 등의 많은 수의 현실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1979년 마쓰시타 그룹의 창업주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700억 원의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은 만 22세에서 35세 사이의 일본 청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엄격한 입학 절차를 거쳐 입학이 되면 4년 동안의 기숙사 생활을 통해 정치, 경제, 재정, 차도, 서예, 좌선, 자위대 체험 입대, 무도, 기술 연수 등의 엄격한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일본의 많은 중의원, 참의원, 지방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당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많은 정치적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대학, 바른정당에서는 청년정치학교, 현재의 미래한국당에서는 청년정치캠퍼스Q라는 정당 내 교육들이 있었고, 정당 밖에서는 건명원, 내일을 위한 오늘, 나비1020, 날아V, 철학살롱,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 등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러한 당내 정치 교육 프로그램들이 당의 수명과 함께 단기간 내에 명멸하였으며, 당 밖에 있는 여러 청년단체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 청년단체들의 재정적 독립성의 한계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김 대표는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고, 자주적인 결정권이 있으며, 정당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청년 정치 생태계의 시대적 필연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권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라고 역설한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청년단체 대표들이 모여 출범한 ‘자주적인 청년정치 생태계 - 더 영텐트’를 소개하며 청년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자생적 정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청년 단체 연합체인 ‘더 영텐트’는 청년 단체들에게 그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요소들인 자원, 인프라, 홍보, 마케팅, 후원, 대외 협력 등에 대한 집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그 안에 있

는 청년 단체들과 회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2020년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청년라운드테이블 발제자 (가나다순)

- **김경동** 현) 청년단체 네트워크 '더영텐트' 총괄디렉터
전) 청년정치학교 1기 회장
- **김동민** 현) 나비1020 대표
전) 제19대 자유한국당 대통령선거후보 청년공약TF 위원
- **김인호** 현) 내오(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
전)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
- **이윤정**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전국 여성최연소)
전) (재)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 **주홍비** 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
현) 국회사무처 소관 (사)날아 공동대표

- **담당 및 편집:** 이은지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7) ej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8월 14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